

朝鮮文化의 創造性 ; 哲學, 偉大한 文化形成에는 哲學的地盤이 必要[上]

安浩相

한 時代의 文化가 人類文化 全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地方의 社會民衆또한 世界文化 全體를 創造하지 못하는 것이다. 偉大한 人類文化는 各 社會民衆 總 勞力을 빌여서만 完成할 수 있는 것이다. 한 時代의 文化가 隆興衰退하는데 따라 그 時代의 幸 不幸이 決定되는 것은 勿論이려니와 한걸음 더 나아가선 以後의 各 時代가 그로부터 받는 影響이 그 역 적지 아니하며 또는 한 社會의 民衆文化의 隆興衰退가 비단 그 한 社會의 民衆에만이 아니라 世界人類 全體에까지 好□의 影響을 주는 것이 그 역 事實이다. 우리가 西歐의 歷史를 볼때 古代希臘文化가 어떤 點에선 現代西歐諸國의 그것보다 훨씬 한층 뛰어난 것이 잇지마는 만일 西歐古代文化를 時代의 그것과 比較할 때엔 現代文化가 古代의 그것 보다 만드시 못하다고 斷定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거기엔 무슨 理由가 橫在하였을가? 여기에 對해선 아무 다른 理由가 없이 오직 古代에 잇어선 비록 希臘 一國의 文化는 卓越하여 잇지마는 그와 反對로 佛蘭서, 獨逸, 英國 등의 諸 民衆들은 文化의 水準이 甚히 뒤떠러 졌다는 것과 또는 現代에 잇어선 諸 社會民衆들의 文化가 同一한 水準□에로 向上되어 文化의 普遍化가 實現되었다는 그 理由 밖에 더 잇을 수가 없는 것이다.

歷史의 수레박회(車輪)가 永遠이 굴러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바이다. 歷史가 굴러가는 길(道)은 곧 各 時代며 또 歷史를 굴리는 者가 곧 各 社會民衆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歷史의 수레박회를 단지 굴려보내는 데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박회가 굴러간 길 위에 그려노흔 자취를 보는데서 無變의 滿足을 느끼게 된다. 굴러가며 흘러가는 것은 모두가 허황하여 없지 않고만 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허황한 無今에서 오직 永遠이 남아잇는 것은 現代란 길 위에서 굴러가는 歷史의 박회가 그려두고 간 結果로서인 文化란 그것 밖에는 더없다. 歷史는 文化를 創造한다. 그러나 文化는 決코 歷史로부

터 創造된 結果만이 아니다. 人類은 文化를 創造하기 爲하여 歷史를 만들며 또 歷史는 文化를 創造하는데서 自己의 存在가 成立하는 까닭에 文化는 歷史의 目的으로서 곧 歷史創造의 原因까지 되는 것이다.

人間은 文化建設이란 이 한 크다란 工事場에서 한 사람의 作業者며 또 各 社會는 거기에 一部分의 作業場에 不過한 것이다. 한 개의 全體의 完成에는 部分의 完成이 絶對 必要한 까닭에 部分的 作業이 不完全하고는 全體의 工事가 完全하기를 바랄 수 없을 것이다. 朝鮮이란 이 社會와 또 朝鮮人이란 이 民衆이 人類의 圈外에가 아니라 人類란 그 名稱을 아직 갖은 存在로서 그가 또한 人類文化의 建設工事에 自己의 맘과 힘을 남과 같이 바칠 義務와 權利가 있다. 만일 우리가 朝鮮의 文化를 發展시키지 못하여 朝鮮의 民衆을 向上시켜주지 못할 時엔 우리는 우리의 義務와 權利의 破壞者일 뿐만 아니라 人類文化에 들도 없는 罪人이 되고 말것이다. 人類文化는 各 社會民衆이 서로 協力하는데서 發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社會의 文化發展은 政治, 經濟, 學問, 藝術, 宗教등의 各 領域이 共同協力하는데서 可能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이들 各 領域에 있어서 그들의 發生과 發展의 先後와 優劣은 있을지언정 結局 그들은 統一調和되어 한 개의 全體를 이뤄야만 그 社會의 文化가 創造되며 또 發展할 수 있다. 이것이 文化發展에 偶然한 事實인지 혹은 文化創造에 必然的 法則인지는 모르나 如何튼 東西古今의 諸 文化의 創造發展이 이 過程을 밟았다는 것만은 속일 수 없는 事實이다. 朝鮮의 文化가 또한 世界文化史에서 放逐되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世界文化史 上에서 永遠히 빛나는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朝鮮의 文化遺産으로서나 또는 西洋人이 말한 바 “松都(開城 卽 高麗)는 當時는 遠東精神의 中心地다”(獨逸 마이에트 百科全書 朝鮮篇 參照)라는 것을 불지라도 알 수 있는 것임) 그것은 文化發展의 必然的 過程 卽 政治, 經濟, 學問, 藝術, 宗教 등 이들의 統一調和를 通하여 形成되어야진 것이다.

어느 社會를 勿論하고 哲學의 土臺가 없더라도 다른 部門이 個別的으로 發展하기 始作하는 수도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各 部門이 特殊的으로 發展하여 偉大한 文化를 形成하려면 그들은 반드시 哲學의 地盤을 要케 된다.

文化의 大樹를 빛나게 꾸미는 데는 꽃과 잎이 없어서는 아니 되지만은 文化의 大樹가 存在하려면 무엇보다 그것의 根幹의 必要할 것은 不言不知의 일일 것이다. 꽃과 잎이 茂盛함을 따라 根幹의 또한 長大할 것도 事實이지마는 根幹이 長大함을 따라 꽃과 잎이 茂盛하여질 것은 그보다 더 明白한 事實이다. 政治와 科學 宗教藝術이 없는 文化의 大樹는 꽃과 잎이 없이 뻐뻐 마른 줄기와도 같이 何等의 豊富美가 없을 것이나 哲學이 없는 文化의 大樹

는 부리와 줄기가 없이 꺾어진 꽃송이와 같아서 그것의 生命은 오래갈 수 없는 것이다.